

2025 한국섬유공학회 추계학술대회를 마치고

정재우 학술수석이사(숭실대학교)

2025년도 한국섬유공학회 추계학술대회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401편의 논문(기조강연 1편,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1편, 신진학술상 수상 기념강연 1편, 이노베이션 어워즈 수상기념강연 1편, 기기분석 강좌 1편, 초청강연 37편, 전북대 특별세션 11편, 우수구두 20편, 일반구두 21편, 우수포스터 36편, 포스터 271편)이 발표되었으며, 87개 기관에서 총 639명이 참가하여 풍성하고 의미 있는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모로 국내 정상급 학회로 발돋움한 한국섬유공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섬유와 함께 유기·무기·복합소재 등 다양한 소재 분야의 최고 수준 연구를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순수 국내 학술대회 최다 등록을 달성하는 등 질적·양적 성장을 모두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기기분석 강좌가 열렸습니다. 숭실대학교 김병효 교수님께서 ‘투과전자현미경의 이론 및 분석 실제’를 주제로 강연해주셨고 많은 회원들이 본인의 연구에 투과전자현미경 분석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한국섬유공학회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차기 수석부회장으로 건국대학교 김형섭 교수님이 선출되었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와 임원 인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추계 학회상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제25회 우수논문상은 영남대학교 오태환 교수님(한국섬유공학회지)과 숭실대학교 김주용 교수님(Fibers and Polymers)이 수상하였습니다. 제19회 신진학술상은 서울대학교 곽효원 교수님과 한양대학교 엄영호 교수님이, 제10회 Innovation Awards는 현대자동차 서재식 책임연구원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국내 섬유공학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후원해주신 기업들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기총회 후에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김재필 교수님의 기조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나의 배움, 가르침 그리고 연구 속에서의 기회들”이라는 주제로 교육과 연구 현장에서 30여 년간의 경험을 담은 깊이 있는 강연을 해주셔서 많은 청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후 한양대학교 안희준 교수님의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위한 그래핀 기반 표면·계면 공학”이 진행되었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응용 까지 폭넓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참석자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후 섬유고분자재료·공정, 고성능산업소재, 섬유고분자 기능화·가공, 의류 및 웨어러블 공학, 중견 및 신진연구자 세션이 열렸으며 초청 연사들의 최신 소재기술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로봇공학, 차세대 전기방사 응용기술, 탄소복합재 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주제로 한 3개의 특별세션이 준비되었는데 해당 내용들이 현재 과학 기술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많은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구두발표와 포스터발표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포스터 세션에서는 우수포스터발표 경진대회가 함께 열렸으며, 발표자들은 서로의 연구를 질의응답하며 열띤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최우수상은 정혜빈(경북대), 배정민(경북대) 학생이 수상하였고, 우수상은 김예림(부산대), 김지현(단국대), 이지율(서울대), 조현준(KIST), 김가영(숭실대), 김다은(경북대), 박태희(충남대), 최선재(단국대) 학생이 수상하였습니다. 발표 종료 후에는 벡스코 인근 ‘그랜드애플’에서 간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입회원 소개 시간이 마련되었는데, 무려 25분의 신규 회원이 참석하며 학회의 성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은 한양대학교 위정재 교수님의 신진학술상 수상기념강연 “황 고분자 기반 마찰대전 에너지 하베스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탄소 중심 고분자에서 벗어나 황 기반 고분자의 새로운 가능성과 이를 활용한 에너지 생성 시스템을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 서재식 박사님의 이노베이션 어워즈 수상기념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래 소재 기술과 친환경차 분야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비전과 연구 방향을 공유해주어 많은 회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학회상 수상 기념 강연 후 차세대 에너지 및 전자재료, 생물자원 및 지속가능 소재, 나노하이브리드 및 복합소재 세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청강연과 일반 구두발표가 이어지며 학회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초청강연과 동시에 우수구두발표 경진대회도 진행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수구두발표 신청자가 예년보다 많아 이틀에 걸쳐 경진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우수상은 김태연(충남대), 김용우(서울대) 학생이 수상하였고, 우수상은 양지훈(서울대), 유동훈(건국대), 유진(강원대), 서보연(단국대), 이윤수(강원대) 학생이 수상하였습니다. 한국섬유공학회의 미래 후속학문 세대인 학생들의 뛰어난 연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자가 많아진 만큼 회원들의 학회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수포스터발표와 우수구두발표를 심사해주시고 좋은 학생들을 선발해주신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추계학술대회와 함께 지속가능소재분과가 주관한 제1회 이차전지 원데이 부트캠프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이차전지의 미래”를 주제로, 전기화학 기초를 비롯하여 양극재·음극재·분리막·건식전극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져 ‘하루에, 한 번에 이차전지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등록 인원 86명으로 강연장이 가득 찰 만큼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집중도 높은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행사 후에는 연사 및 분과 회원들이 함께 식사하며 연구 네트워크를 더욱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섬유공학회가 점점 발전하고 있음을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섬유산업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한국섬유공학회가 그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헌신해주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학회원 여러분, 2025년 연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